



발행인 배규식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8년 8월 3일

#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0(seongjm@kli.re.kr)

15세 이상 인구의 빠른 둔화와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지난해 동 기간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 제조업과 건설업, 음식업 등 일부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산둔화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낮은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142천 명 증가, 고용률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60.4%,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4.1%를 기록하였다. 최저임금은 전체적인 고용증가폭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취업자 수 증가폭 자체는 작고, 일부 부문의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인구 둔화와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평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하반기에는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근거해볼 때 상반기보다 개선된 취업자 수 증가를 보일 것이며, 서비스업 중심의 개선세가 예상된다.

## I. 2018년 노동시장 개관

2018년 상반기 취업자 수(1~6월 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42천 명 증가하여 2017년 상반기 360천 명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다. 이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빠른 감소, 생산직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고용 감소, 지나치게 팽창했던 아파트 분양분이 지나간 여파로 인한 건설업 고용 둔화, 포화상태에 달해 이미 2016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둔화하기 시작한 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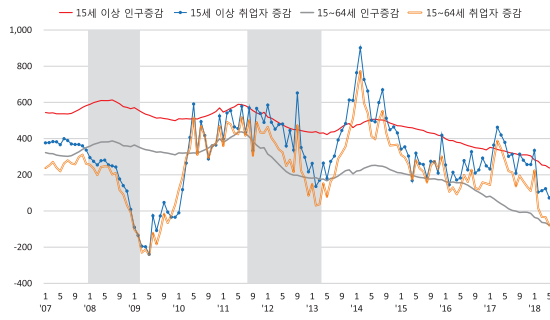
에 사드 관련 충격이 겹쳐 나타난 고용감소 같은 일부 부문의 어려움, 동 기간 교육서비스와 도소매 등 일부 서비스부문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던 기저효과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부문 중심으로 고용감소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 상반기 고용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인구변동과 기저효과에 대해 먼저 서술하고, 연령 및 업종별 특징 순으로 상반기 노동시장을 평가한 후 하반기 전망 및 연간

2018년 1~6월 평균 취업자 수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42천 명 증가

\* 이 글은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을 요약한 것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참고 바람).

[그림 1]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1> 15~64세 고용률 가정 시 취업자 증감수

(단위: 천 명, 전년대비)

	15~64세 고용률 증감 가정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5~64세 취업자 증감	고용률 증가 0%p	-30	-46	-160	-154	-165	-179	-225	-283
	0.3%p	82	67	-49	-45	-58	-73	-122	-185
	0.45%p	139	123	6	10	-4	-20	-71	-136
15세 이상 취업자 증감	고용률 증가 0%p	92	80	16	10	9	10	-27	-58
	0.3%p	204	192	127	119	116	115	76	41
	0.45%p	261	248	182	174	170	168	127	90

주: 65세 이상 취업자는 인구증감의 40%가 취업자로 유입된다고 가정하여 「15~64세 취업자 증감」에 합산해 15세 이상 취업자 증감수 산출.

수정전망을 제시하겠다.

15~64세 인구는 2018년 들어 감소폭이 빠르게 커져 6월 전년동월대비 8만 명 감소한 상태이다. 15세 이상 인구도 5년 전에는 42만 명 증가하였고 지난해 33만 명 증가해 4년간 9만 명이 감소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23만 7천 명이 증가해 단 1년 사이 증가폭이 약 10만 명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인구 변화는 우리나라 취업자 수 규모를 줄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sup>1)</sup> 취업자 수 규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히 시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기저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하고, 15~64세 고용률의 전년 대비 증감수준이 2001~2017년 평균인 0.3%p 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인구 증가분의 40% 정도가 취업자로 유입되면 좋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계속 40%가 취업자로 유입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하면 15~64세 취업자는 올해 82천 명 증가하나 2020년에는 49천 명 감소하고, 2024년에는 122천 명 감소하게 된다.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8년 204천 명 증가하며, 2020년에는 127천 명, 2024년에는 76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년 수준을 가정한 것이므로 이 정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대체로 노동시장 상황이 통상적인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로 노동시장의 활성화 수준을 판단할 때 2018년에는 약 20만 명 내외, 2020년에는 10만 명 초반, 2024년에는 만 명 후반대 정도로 그 기준선이 급격히 하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는 여기에 더해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면 올해 특별히 더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한 취업자 증가폭이 크기 어려운 기저변동이 작용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는 15~64세 기준 고용률이 0.6%p 증가해 장기 연평균 고용률 증가폭인 0.3%p의 두 배가 증가했으므로,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15~64세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전혀 증가하지 않아도(즉, 0.0%p 증가)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하면 연평균 취업자 수가 92천 명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저효과를 고려하게 되면 올해 상반기 각 월에 나타난 10만 명 초반대 증가는 큰 문제가 없는 평년상황 취업자 증가폭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2)</sup>

2018년 상반기에도 고용증가는 여성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중심 고용증가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현상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함께 여성 취업이 활발한 업종(이러테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고용성장세

노동시장 활성화 수준의 판단근거가 되는 취업자 증가폭 기준이 인구변동으로 빠르게 하향

기저변동 감안하면 2018년 상반기 10만 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는 평년수준 상황으로 해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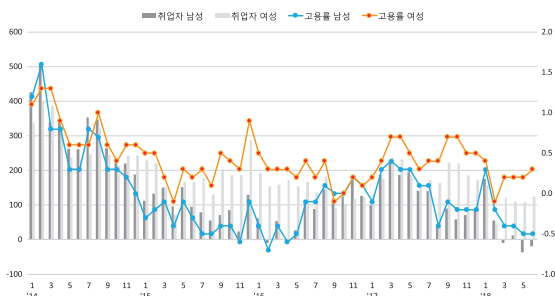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15~64세 인구는 2018년 46천 명이 감소하며 2019년 68천 명, 2020년 240천 명, 2025년 425천 명 감소로 그 폭이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2) 다만, 5, 6월은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평년수준 증가폭을 다소 하회한 것으로 평가된다(기저 변동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노동리뷰 2018년 8월호,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을 참고 바람).

여성 중심으로 고용 개선 흐름  
지속 중

[그림 2]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 다른 산업에 비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8년 상반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5~64세 여성 취업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둔화하긴 했으나 증가(2017년 상반기 140천 명 ↑ → 2018년 상반기 56천 명 ↑, 고용률도 0.4%p 증가한 56.9%)하였으며, 남성은 취업자 수가 2018년 2월부터 감소로 전환된 이후 5월과 6월에는 10만 명 이상 취업자 감소를 보였다(고용률도 0.3%p 감소한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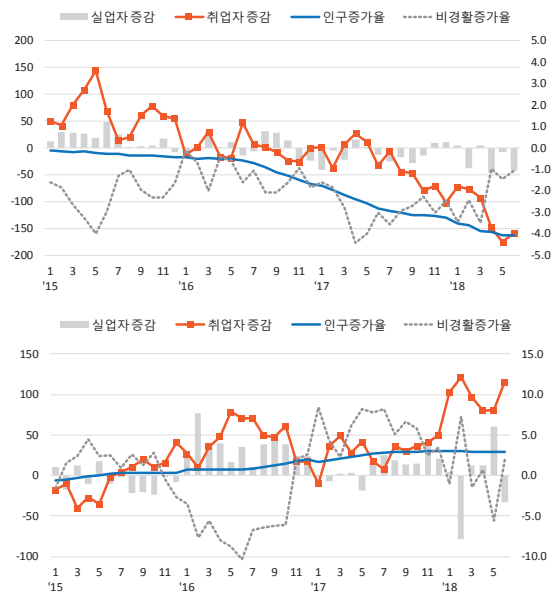
한편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5천 명 증가하여 상반기 기준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실업자 규모 및 실업률은 201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각각 114만 명, 4.1%로 나타났다. 2013년 이래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는 주로 청년층에서 나타났으나,<sup>3)</sup> 2018년의 증가는 주로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50세 이상 47천 명 증가, 30대 이하 29천 명 감소). 65세 이상은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다는 점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할 2018년 상반기 45~64세 고용둔화와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 II.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 1. 20대 후반 고용개선

[그림 3] 15~24세(상) 및 25~29세(하) 청년층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18년 상반기에 21천 명 감소하였다. 20대 후반은 건조한 증가흐름을 보였으나, 10대 후반(18~19세 고졸 및 전문대졸 이상 재학생 중심)에서 64천 명, 20대 초반에서 96천 명(4월 73천 명 ↓ → 5월 106천 명 ↓ → 6월 110천 명 ↓) 감소한 영향이다.

20대 실업자는 2018년 2월 10만 명 넘게 감소한 영향으로 상반기에 21천 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0.5%p 감소한 10.1%였다. 20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상반기 27천 명 증가했는데, '정규교육기관 통학'자가 전년동기대비 39천 명 증가했고 20대 졸업생 중에서는 취업준비자가 20천 명 증가하였다.

20대 초반에서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졸업생 위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대졸자와 대졸 이상 학력층에서 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자는 보건·복지업(여성, 전문가 직종 중심, 상반기 25천 명 ↓)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며, 대졸 이상자는 전문·과학기술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주로 감소하였다(상반기 33천 명 ↓). 반면 고졸자의 고용률은 2018년 상반기

50세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증가

20대 초반은 고학력층에서 주로  
고용감소하나, 고졸자는 도소매업  
중심으로 고용증가

3) 청년의 취업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무원 시험등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방식의 구직활동 증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증가가 주된 원인이었다.

20대 후반은 고학력층 중심으로 고용 개선

내내 증가하고 있는데(2018년 상반기 2.3%p 증가한 63.2%), 도소매업(상반기 15천 명 ↑)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20대 후반은 반대로 전문대졸과 대졸자 중심으로 고용률이 개선되었다. 20대 후반 고졸자의 경우 건설업과 운수업, 숙박·음식점업(3월만 감소) 중심으로 2018년 내내 취업자 수가 증가(37천 명 증가, 6월 53천 명 증가)하였으나, 인구가 71천 명 증가한 영향으로 고용률은 2018년 상반기에 1.8%p 감소(6월 2.3%p ↑)한 69.6%를 보였다. 전문대졸은 도소매업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31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도 상반기에 1.2%p 증가(78.2%)하였다.

대졸 이상의 경우 상반기 고용률이 1.0%p 상승한 74.0%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증가했다. 남성은 제조업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은 도소매업과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 각 1만 명 내외의 고용증가가 나타났다.

2. 35~44세 기혼여성 고용률 개선

30대 초반 미혼 여성 고용률은 80.9→78.5%로 하락했으나 30대 초반 기혼 여성 경제활동 증가흐름이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49.9→51.9%로 상승하였다.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30대 후반 기혼 여성 고용률이 2016년 상반기 이래 3년째 증가하고 있다. 혼인과 자녀출산으로 M커브의 저점이 30대 후반으로 이동하면서 이 연령대 기혼여성 고용률이 몇 년째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태를 유지했는데, 2016년 1월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40대 초반 기혼 여성 고용률 흐름도 주목할 만하다. 30대 후반과 함께 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만혼화, 늦은 출산의 영향으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2017년 고용률 증감 자체는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방향은 뚜렷이 개선되는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2018년 3월부터는 고용률 증감 수준 역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전년

동월대비 0.3%p 증가한 60.2%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흐름이 지속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3. 40대 후반~60대 초반 고용둔화

전년동기대비 45~64세 연령대 취업자는 2017년 상반기 438천 명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 상반기 평균 159천 명 증가에 그쳐 고용률도 2018년 상반기 0.5%p 감소한 73.2%를 기록했다. 기저효과 영향도 일부 작용하고 있지만, 동 기간 실업자는 42천 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도 125천 명 증가로 늘어나 고용둔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45~64세 연령층 주요 고용지표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6	1-6	1-6		1-6	1-6	1-6		
주요 산업	제조업	27	39	17	직종	사무종사자	162	122	76	
	건설업	25	108	20		판매종사자	-20	71	8	
	도소매업	12	85	5		기능직종사자	46	32	-48	
	운수·창고업	13	-7	8		장차·기계종사자	38	33	-18	
	음식·숙박업	7	0	-16		단순노무종사자	-12	29	-45	
	정보통신업	27	11	44	종사상위	상용직	253	325	271	
	금융·보험업	16	15	26		임시직	66	-57	-53	
	부동산업	10	63	-28		일용직	-31	52	-67	
	전문·과학·기술	32	47	10		고용된 있는 자영업자	-29	45	33	
	사업관리·지원·임대업	28	-7	1		고용된 없는 자영업자	-14	80	-31	
	공공행정	35	9	-1		학력	고졸 미만	-210	-155	-124
	교육서비스업	33	55	17			고졸	148	284	39
보건·복지업	30	52	32	전문대졸	55		99	63		
45-64세 전체	238	438	159		대졸 이상	243	209	17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에서 주로 증가폭이 줄거나 부진하였다. 아파트 분양분에 따른 건설경기 호황이 지나가면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고용이 동반 부진하고 있는 것이며, 도소매업은 주

만혼화, 늦은 출산으로 고용률 담보상태이던 30대 후반 및 40대 초반 기혼여성 고용률 개선 흐름 지속

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영향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외에도 일용직이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줄면서 전년동기와 비교해 고용이 부진한 모습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이 연령대에서 제조업도 고용부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제조업 고용부진은 기능원, 장치·기계종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학력에서 나타나 최근 생산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제조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4. 65세 이상 고령층 노동시장 진입 활발

2018년 상반기의 65세 이상 취업자는 조사 이래 최대인 137천 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0.6%p 상승한 30.0%를 기록했다. 노후소득 부족 및 건강 증진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증가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사업규모도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실업률 또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 5.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

상용직은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6월 증가폭은 365천 명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임시·일용직의 감소가 이어져 상반기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142천 명에 머물렀다. 임시직은 116천 명 감소하였는데 제조업 생산둔화를 반영해 가장 많은 74천 명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에서도 21천 명 감소했는데, 이 업종에서의 임시직 감소는 이미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2015년 상반기 6천 명, 2016년 상반기 74천 명, 2017년 상반기 11천 명 감소한 바 있다. 숙박음식점업에서는 1만 명 감소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현상으로 2017년 상반기에는 61천 명 감소한 바 있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각각 53천 명, 28천 명, 12천 명 감소하였는데, 도소매업의 일용직 감소는 이미 2015년부터 지속된 현상이며(2016년 상반기 32천 명 ↓, 2017년 상반기 7천

[그림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명 ↓), 숙박음식점업의 일용직은 증가와 감소를 해마다 번갈아가며 이어가고 있었다(2014년 상반기 2만 명 ↓, 2016년 상반기 24천 명 ↓). 이와 같이 기존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임시·일용직의 감소 추이를 염두에 놓고 보면, 올 상반기 임시·일용직 감소의 원인은 올해 특이 요인일 뿐인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업체 급증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날로 영업이익이 축소되고 비용압박에 시달리는 이 두 산업의 처한 상태가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한 진단이겠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반기 73천 명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에서 60천 명 감소(30~54세 58천 명 ↓)한 것과 2년 가까이 감소 중인 운수업(상반기 16천 명 ↓), 지난해 상반기에 31천 명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에서 올해 3월 감소로 전환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기 이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증가하고 개선되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최근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

45~64세 건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부진

65세 이상 취업자 조사 이래 최대인 137천 명 증가

상용직 증가 꾸준하나, 임시·일용직은 최근 생산이 부진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중심으로 감소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의 임시·일용직 감소는 올해 상반기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보다는 금융위기 이래 업체 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두 업종의 처한 상태가 원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감소는 금융위기 이래 노동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신호일 가능성 높아



자 감소는 이직목적 폐업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이동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상반기에 6만 명 증가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달리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60세 이상(약 4만 명)과, 30대(15천 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

### 6. 제조업 고용감소 전환

제조업은 2018년 상반기에 취업자가 23천 명 감소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말부터 전년동월대비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상반기에는 1.3% 감소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생산 감소로 인해 직업별로는 사무직(상반기 33천 명 증가)보다는 생산직 중심으로 고용감소(68천 명 감소, 생산직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미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상용직은 최근 들어 증가폭이 줄어드는 수준이지만(상반기 91천 명 증가, 6월 21천 명 증가) 통상 일시적 생산수요 대응 목적으로 활용되는 임시직은 74천 명 감소하였다(6월 91천 명 감소).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고졸 생산직 취업자 중심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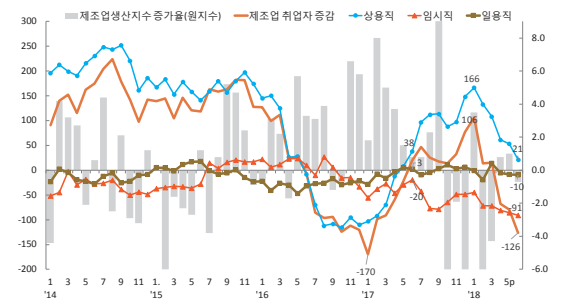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 둔화에 따른  
생산직 취업자 감소**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 제조업은 2018년 상반기에 생산이 7.0% 증가(반도체 9.4%)하였고,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 혁명 진전, 전자기기 고사양화 등으로 인해 향후 반도체 산업 전망(하반기 17.4% 생산 증가)<sup>4)</sup> 또한 밝은 상태다. 이는 해당 산업 고용의 꾸준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최근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역전시킬만큼의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공공행정, 보건복지업 위주의  
증가와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의 감소**

4) 산업연구원(2018.7), 「2018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5) 한국자동차산업협회, 「6월 자동차 산업 총괄표(잠정)」.  
6) 산업연구원(2018.7), 「2018년 하반기 12대 주력산업 전망」.

**[그림 5] 제조업 취업자 증감(좌축)·생산지수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 「광업제조업동향조사」, KOSIS.

한편, 한국GM 등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과 업계 전반의 생산 및 판매 부진(1~6월 평균 7.3% 생산 감소, 5.9% 판매 감소<sup>5)</sup>)이 고용에 까지 영향을 미쳐, 7개월 연속 피보험자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6월 -10천 명 감소로 계속해서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 종사자 수 감소(1~5월 평균 -5천 명)에서도 확인되는 모습이다. 다만,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 및 생산이 상반기 감소세와는 달리 하반기에는 각각 3.1%,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sup>6)</sup>되고 있어 자동차 산업 고용에도 긍정적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7.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서비스업은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 추세에 2017년 4분기부터 시작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가 더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세부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금융보험업 순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컸고, 교육서비스, 도소매, 숙박음식 등은 고용이 감소했다. 부동산업(-20천 명)은 건설경기 둔화 영향을 받았으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천 명)은 제조업 부진, 연구개발업 고용감소, 건설업 둔화 등으로 고용이 상반기에 감소했지만, 최근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6월 21천 명 증가). 정보통신업(30천 명)은 모바일 소프트웨어

[표 3]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2017	2016 1~6월	2017 1~6월	2018 1~6월
서비스업	208	299	209	239	293	72
도매 및 소매업	-18	-63	41	-111	58	-62
운수 및 창고업	0	-2	-22	13	-35	2
숙박 및 음식점업	77	96	-3	90	30	-24
정보통신업	55	10	-1	2	17	30
금융 및 보험업	-53	4	-9	-6	-7	49
부동산업	7	21	57	13	65	-20
전문·과학 및 기술	21	46	-9	60	7	-9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87	60	-17	76	-21	-24
공공행정·국방	-22	55	55	57	33	73
교육서비스업	6	27	45	21	77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72	80	61	70	67	99
예술·스포츠	30	-21	22	-32	23	26
협회 및 단체, 수리	-25	-8	-3	-3	-15	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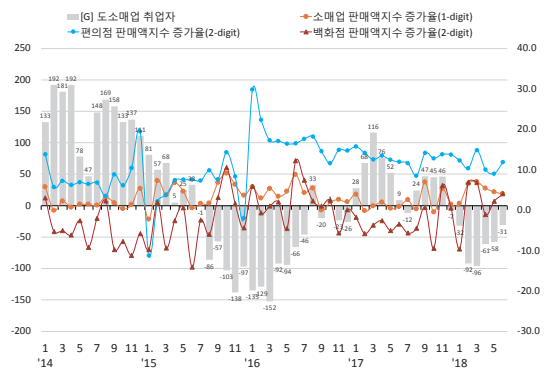
어 개발 등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생산이 상반기 6.4% 증가한 영향으로 해당 분야의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2018년 상반기 62천 명 감소했다. 2017년 상반기 58천 명 증가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인데, 이 산업에서 지난 몇 년간 감소하던 임시(-21천 명), 일용(-28천 명)직 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60천 명)의 감소가 나타난 것이 주 원인이다. 반면에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 도소매업 고용감소폭이 지난해 고용증가의 기저분 정도이고, 민간소비 증가가 하반기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는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7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작은 24천 명 감소).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24천 명)는 2016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둔화되기 시작해 2017년 하반기부터 감소하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감소폭(6월 -1천 명)을 줄이는 모습이다. 과거 몇 년간 출점이 활발했던 커

[그림 6] 도소매업 취업자 증감 및 업태별 소매판매역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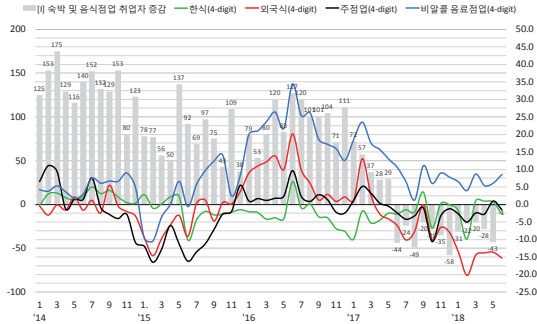
편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업의 생산 증가폭이 둔화되고, 한식음식점업 중심으로 음식업 생산도 감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더해 음식업 생산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사드발 관광객 감소의 영향도 남아 고용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업은 상반기 내내 고용감소가 지속되어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85천 명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은 학령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고용이 감소하기보단 회복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방과후학교, 보육 등)가 증가하고, 교사수급을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의 정책변화가 없었던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사교육 부문에서는 학령기 인구감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대학구조조정(서남대 등)도 소폭이나마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 안에는 평생학습, 직업훈련같이 교육서비스업 고용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부문도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고용감소를 학령기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 그보다는 지난해 상반기 77천 명 취업자 증가 기저효과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경찰과 취업자를 맞추는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으로 보면 교육 서비스 취업자가 주로 공교육 부문에서 증가하였으나, 교육행정통계 상에서는 해당 시기 공교육부문 종사자의 큰 증가가 관찰되지는 않았고, 경찰 교육서비스와 임금근로자 규모가 같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아도 올해 상반기

민간소비의 안전한 증가에  
힘입어 도소매업 고용이  
하반기에 다소 개선될 전망

[그림 7]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감 및 세부산업별 생산증가율(불변지수, 2015=100)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종사자 증가 규모가 15천 명 증가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저가 약해지는 하반기부터는 학령기 인구감소를 반영해 취업자가 감소해온 사교육 부문과 대학구조조정 감소분 정도가 남아 상반기보다는 감소폭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에서는 전산업 중 가장 큰 취업자 증가(99천 명)가 나타났다. 특히 2분기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48천 명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56천 명 증가했는데,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와 노인일자리아업 확대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돌봄 및 보건 관련직이 포함된 서비스 종사자(23천 명)와 청소 및 경비가 포함된 단순노무 종사자(23천 명)의 증가가 나타났다. 20대 후반(32천 명)과 30대(37천 명)의 고용증가, 보건관련직이 포함된 전문가 직종의 취업자 증가(35천 명)가 비교적 견조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고령화로 인한 보건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보건업 고용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건설업 고용 둔화

2018년 상반기 건설업 고용은 2017년 상반기 기록적인 취업자 수 증가(149천 명)와는 상반된 증가세 둔화 양상(43천 명)을 보였다. 일용직(지난해 상반기 91천 명 증가에서 올해 상반기 12천 명 감소), 40대 이상에서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2015년 하반기

기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호조가 지나간 영향으로 판단된다.

III. 2018년 하반기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8년 경제성장률(연간) 전망치를 1월 3.0%, 4월 3.0%, 가장 최근인 7월에는 2.9%로 소폭 하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 및 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상품수출은 양호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반기 4.0%)하였으며, 민간소비는 완만한 개선흐름(연간 2.7%)을 지속하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 등에 따른 내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문별로 볼 때 현재도 증가폭이 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부문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고, 민간소비가 전망대로 개선세를 이어간다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맞물려 맞벌이화, 소비자 선호 변화라는 큰 트렌드가 존재하는 음식점업은 상반기보다 고용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1인 가구화로 집 근처 소비 트렌드가 존재하는 도소매업도 상반기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상반기 기저가 하반기에 완화되므로 고용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자체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 전문서비스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고용이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문과학서비스에서 상반기 흐름을 이어간다면 서비스업은 상반기보다 뚜렷한 고용개선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도 산업연구원 전망을 감안하면 생산은 상반기보다 다소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기저를 감안할 때 고용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건설업도 둔화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8년 하반기 취업자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비교해 고용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약 208천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 175천 명 증가할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 증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서비스업 고용 개선

건설경기 둔화와 함께 건설업 고용 둔화는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것



것이라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보다 0.2%p 낮은 2.9% 성장이 예상되어 증가폭이 소폭 떨어졌지만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반면, 취업자 증가 수치는 예년에는 보기 힘든 낮은 수치로 전망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5~64세 인구증가율이 2018년 들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의 생산둔화, 2018년 상반기 지난해 기저변동으로 인한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평년수준 경로로 가되, 5, 6월 취업자 증가폭이 이 경로를 하회한 것이 연간 취업자가 20만 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중 인구제약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구조적 제약요인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예상보다 더 좋아지더라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을 넘어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대비 각각 0.1%p씩 증가한 63.3%, 60.9%로 전망되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후에도 인구감소는 지속될 것이며, 남성 고용률은 이미 젊은 연령대를 제외하면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청년층 및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어야 장기적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간 격차 완화 없이 청년 노동시장의 지속적 개선은 어려우므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하부의 일자리 질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기존에 고용개선이 가장 어려웠던 35~44세 기혼여성 고용률이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일상화된 초과근로였던 만큼 주52시간 상한제 도입은 여성 경제활동 증진에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안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겠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증가해 경제활동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 개선, 노후준비 부족 등이 주요 요인일 것인데,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노후 준비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할 정부의 일자리대책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임

2018년 하반기 208천명, 2018년  
연간 175천명 취업자 증가 전망

〈표 4〉 2018년 하반기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7			2018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2.8	3.4	3.1	2.9*	2.8	2.9
15세 이상 인구	43,859	44,003	43,931	44,115	44,226	44,170
경제활동인구	27,628	27,868	27,748	27,794	28,106	27,950
경제활동참가율	63.0	63.3	63.2	63.0	63.6	63.3
취업자	26,509	26,940	26,725	26,652	27,148	26,900
(증가율)	1.4	1.0	1.2	0.5	0.8	0.7
(증감수)	360	272	316	142	208	175
실업자	1,118	928	1,023	1,143	958	1,051
실업률	4.0	3.3	3.7	4.1	3.4	3.8
고용률	60.4	61.2	60.8	60.4	61.4	60.9
비경제활동인구	16,231	16,134	16,183	16,320	16,120	16,220

주: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도자료.

시일용직 고용이 줄고 있다. 45~64세 중심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건설업을 포함하여 이들 업종 출신 이직자가 실업자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 이는 특히 저소득 전직 임시일용직, 실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득지원 또는 일자리대책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도 높이면서 저소득을 보완하는 좋은 제도이나, 올해의 저소득을 내년의 소득지원으로 보상하는 형태인 만큼 당장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소득 부족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고용기회 자체가 적을 경우 내년 소득지원액도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근로장려금의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속성상 사회보험 사각지대일 가능성도 높은 이들 실업자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서두르고, 하반기 고용상황이 현재의 예상을 하회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대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단기적인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확대 고려할 필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올랐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OECD 최고 수준인 저임금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여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한편, 과당경쟁과 임대료 등으로 날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도소매, 음식점 등 내수서비스업 부분의 비용압박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임대료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되어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속도감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

향후 전망경로를 볼 때,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자영업자 부채부담 등으로 이어져 민간서비스부문 고용 확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당장은 미중 무역마찰의 부정적 영향이 우리나라 경

**낮은 취업자 증가수치가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제에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 대기업 부문에서는 대체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7월부터 시행된 주52시간 상한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대기업 중심이어서 도입 기업들의 고용에 최소한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고용관행 전반의 변화로 회사 근처 외식 감소나 집 근처 외식 증가, 자기계발 관련 업종 고용증가 등 간접적으로 다른 업종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소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조정과정은 나타날 수 있다. 이들 요인은 전망에 고려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전망 경로에 불확실성으로 남을 요인들이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의 가파른 둔화와 15~64세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하반기와 연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는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작은 수치가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올해를 포함 향후 몇 년간 전체 인구 증가 규모가 빠르게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시에 나타날 수 있는 고용증가 폭도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하에 취업지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인구요인 외에도 올해 상반기 매우 낮은 수준의 취업자 증가는 2017년 상반기 큰 폭의 고용증가를 보인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저효과가 작용한 측면도 크다. 고용률 지표도 많아야 10명 중 3~4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증가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 고용률은 개선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그나마 고령층을 제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 지표가 고용의 실질적 개선을 보여주는 데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고용지표 해석에 있어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